



## 세계 성공회 일치 신앙 직제 위원회(IASCUFO) 2023년 가나 아크라(Accra, Ghana) ACC-18 총회 보고서

*IASCUFO 의장이 ACC에 드리는 서한*

존경하는 ACC 회원님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2023년 2월, 가나에서 열리는 ACC 총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교제하게 될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거의 2년 동안 의장을 맡았던 세계 성공회 일치 신앙 직제 위원회(IASCUFO)가 수행했던 활동들에 대한 보고서를 이 편지와 같이 보냅니다.

IASCUFO는 세계 성공회에 소속된 한 상임위원회로서 ACC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회의 소임은 교리, 교회론, 전례, 교회법, 에큐메니컬 관계 등의 사안에 대하여 세계 성공회의 4대 기구 및 회원 교회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는 본 위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수행했던 사역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고, 특히 세계 성공회가 전 세계의 여러 에큐메니컬 파트너들과 진행하였었던 다양한 에큐메니컬 대화에 대한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몇 년 동안 진행했던 특정 프로젝트 몇 가지와 향후 수행하고자 하는 몇 가지 사역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현재적으로 세계 성공회가 직면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2008년 IASCUFO가 시작된 이래, IASCUFO가 이끌었던 모든 사역을 쓸모 있게 요약하고 있는 *세계 성공회: 일치 신앙 및 직제, 2008-2022 (Anglican Communion: Unity, Faith & Order, 2008-2022)*라는 보고서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본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해 주신 세계 성공회 사무국의 스태프 분들, 특별히 닐 바이거스 (Neil Vigers), 스티븐 스펜서 (Stephen Spencer), 윌 아담 (Will Adam, 일치, 신앙 및 직제 위원회의 전 위원장), 크리스토퍼 웰스 (Christopher Wells, 현 위원장)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가 가나에서 만나게 되면 이러한 보고 내용과 주제들에 대하여 좋은 토론과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Bishop Graham Tomlin

Director, Centre for Cultural Witness, Lambeth Palace

Chair, IASCUFO

(주교 그레함 톰린, *Lambeth Palace* 문화적증거센터 소장, *IASCUFO* 의장)

---

## 1. 서론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성을 위한 세계 성공회의 오랜 헌신과 성공회에 소속된 전 세계 신자들 서로에 대한 우리의 충성은 동일한 하나의 근원에서 흘러나옵니다. 바로 당신의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 세상이 믿게 되길 바랐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것입니다(요 17 : 21). 그리스도교의 일치성을 위한 세계 성공회의 소명은 2009년 제 14차 ACC 총회에서 채택된 "성공회의 에큐메니즘 참여의 네 가지 원칙"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 목표 (Goal): 교회의 완전한 유기적 일치
2. 임무 (Task): 서로 안에 있는 교회를 인정하고 수용하기
3. 과정 (Process): 단계별 일치
4. 내용 (Content): 공통적 믿음, 성례전 및 사역

세계 성공회의 일치 신앙 및 직제 사역은 성공회 내부 교회들 간에만 아니라 적어도 1867년 이후 성공회가 집중적으로 참여해 온 좀 더 폭넓은 에큐메니컬 작업들을 포괄하는 것이며, 그 뿌리는 16세기 종교개혁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과거 그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공회 신자들이 실제적 불일치와 분열 속에서 서로 간의 상통의 은사와 소명에 대하여 숙고해 나갈 때,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한 에큐메니컬 작업의 풍부한 업적들을 통해 큰 힘과 격려를 덧입게 됩니다. 일치를 위한 우리의 오랜 노력과 진실을 말하려는 우리의 헌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며, 우리가 하느님의 은혜로 어떤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 2. 세계 성공회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코비드의 영향

제17차 ACC 총회 직후, 세계는 코비드-19 대유행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모든 교회는 신앙적 삶을 감당하고 사역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세계 성공회의 신학적 대화와 상임위원회들은 대면 회의를 가질 수 없어 연례 회의를 두세 번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온라인 미팅은 우리가 연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사역은 크게 미뤄질 수밖에 없었고, 2022년 5월이 되어서야 몇몇 새롭고 참신한 양방향 대화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 3. ACC-17과 ACC-18 사이의 세계 기독교

2021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지역에 누적되며 심화되어 온 지정학적 긴장의 폭발이었습니다. 정교회 기독교는 이러한 장소와 사람들, 보통의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및 그들의 지도자들의 삶과 얽혀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2018년에 벌써, 모스크바 총대주교는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와 우크라이나 독립 정교회에 대한 독립 승인 문제를 놓고 결별한 바 있습니다. 세계 성공회는 오랫동안 정교회에 대해 가장 깊은 존경심을 유지해 왔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 간의 일치와 아울러 그들 간의 일치를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한편, 로마 카톨릭 교회는 가장 주목할 만한 일련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 재위의 상징으로서 가톨릭 신자 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를 위한 공동합의성(synodality)을 주창하는 노력입니다. 성공회-로마 카톨릭 국제

위원회 (Anglican-Roman Catholic International Commission)의 획기적인 사업들을 통해, 특히 1999년에 발표된 *권위의 선물 (Gift of Authority)*란 글에서 모든 기독교인과 교회는 함께 걷도록 (syn-hodos)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국소 지방은 물론 일정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의 협의와 일치를 이루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공회는 이런 사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리의 가톨릭 친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들과 서로 나란히 걸으려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그들에게서 배우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는 2022년 독일 칼스루에 (Karlsruhe, Germany)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라는 주제로 제11차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른 교단의 그리스도인들의 많이 참여하여 크게 고무적인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 성공회 교회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WCC가 다자간 기독교 협력이라는 유서 깊은 일을 추진하는 가운데 성공회는 역사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격려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공동체로서 함께 걷는 법을 배운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 4. ACC 총회 제16차와 제17차 사이에 있었던 세계 성공회의 에큐메니컬 대화

세계 성공회가 다른 기독교 교단들과 양방향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일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가시적 친교의 방법과 수단에 대해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들 자신의 이익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상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대화 중 일부는 교회를 서로 분리할 뿐만 아니라 교단을 서로 분리시키는 역사적이며 신학적인 질문들과 상대적으로 최근에 대두되어 윤리적 물음들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또 다른 대화들은 역사적인 에큐메니컬 운동의 '삶과 사역' 요소를 바탕으로 공통적인 사명을 통하여 일치를 발전시키려는 것들입니다.

##### a. 신학적 대화

###### 성공회-로마 카톨릭 국제 위원회 (ARCIC III)

ARCIC의 세 번째 단계는 2009년 ARCIC II 작업의 수용을 촉진하고, 교회를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인 연합으로 바라보며, 그러한 연합 속에서 어떻게 지역적이고 보편적인 교회가 윤리적 가르침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지 함께 성찰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ARCIC II의 사업은 2016년 가을에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는 교황과 캔터베리 대주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ARCIC III는 2017년에 첫 번째 합의된 성명서를 작성했는데, 주제는 [“함께 걷기: 국소 지방 및 지역과, 보편적 교회가 되기 위한 길을 배우기”](#)였습니다.

이제는 ARCIC III의 의제가 윤리적 문제, 그리고 성공회와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윤리적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성찰로 옮겨졌습니다. 2024년에 예정된 회의를 통해 합의된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ARCIC는 제18차 ACC 총회 결의안이 없습니다.

###### 성공회-동방 정교회 국제 위원회 (AIOC)

2017년 이후, AIOC는 교회 내 권위의 본질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23년에는 *에큐메니컬 공의회*의 유산 (*The Inheritance of Ecumenical Councils*)에 관한 합의된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 제18차 ACC 총회에서는 이 성명서를 받아들여 세계 성공회 교회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거쳐 반응을 내놓도록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구해야 할 영역은 사도적 계승에 대한 이해와 성직자들이 한 전통에서 다른 전통으로 옮길 때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 성공회-개혁교회의 국제적 대화 (IRAD)

이 대화는 2020년 [“코이노니아: 하느님의 선물과 부르심”](#)이란 합의된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사업이 종결되었습니다.

- 제18차 ACC 총회에서는 이 성명서를 받아들여 세계 성공회 교회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거쳐 반응을 내놓도록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 성공회-정교회의 신학적 대화를 위한 국제 위원회 (ICAOTD)

2015년 합의된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소망 가득한 인류학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A Hope Filled Anthropology*)”이란 성명서는 우리가 인간에 대해 믿고 있는 것의 윤리적 함의를 성찰하는 일련의 성명서들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2020년에 위원회는 생태에 관한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 세계의 청지기: 캔터베리 성명서 \(\*Stewards of Creation: A Hope-Filled Ecology - The Canterbury Statement\*](#). [Cuidadores/as de la Creación: Una ecología de esperar. Cuidadores/as da Criação: Uma Ecologia de Esperançar. Gardiens de la Création : Une Écologie Pleine d'Espérance](#))

2023년에 위원회는 “잘 죽고 잘 살기: 우리의 분명하고 확실한 희망 (*Dying Well, Living Well: Our Sure and Certain Hope*)이라는 합의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 제18차 ACC 총회에서는 이 성명서를 받아들여 세계 성공회 교회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거쳐 반응을 내놓도록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 b. 일치와 선교를 위한 대화

### 일치와 선교를 위한 성공회-로마 카톨릭 국제 위원회 (IARCCUM)

IARCCUM은 ARCIC가 완료한 사업을 수용하고, 세계 성공회와 로마 카톨릭 교회 간의 선교 협력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전 세계 성공회 및 로마 카톨릭 주교들이 모인 주교 위원회입니다. 2016년 10월에 IARCCUM 주교들은 캔터베리와 로마에서 회의를 가졌으며, 그 회의에서 교황과 캔터베리 대주교는 전 교회적인 공통적 선교와 일치를 위한 사역을 위해 위임을 받았습니다. 주교들이 모이는 두 번째 모임은 2023년 1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정 지역을 대표하는 주교들이 두 명씩 로마에서 모임을 갖고, 우정과 선교의 영적 순례를 하면서 캔터베리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 성공회-루터교 국제 조정 위원회 (ALICC)

전 세계 성공회와 루터교 사이의 관계를 모니터링 하고, 조정 및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ALICC는 ACC-16 이후 임무를 종료했습니다. ALICC의 권고에 따라 세계 성공회와 루터교 세계 연맹은 이를 새롭게 개정하여 일치와 선교를 위한 성공회-루터교 국제 위원회 (ALICUM)를 구성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이 조직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성공회와 루터교 주교들로 구성된 의원회로서 서로의 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일치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첫 미팅은 2023년 3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 성공회-구카톨릭 국제 조정 협의회 (AOCICC)

성공회와 구카톨릭은 완전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AOCICC는 우리가 공유하는 것들의 본질과 의미를 탐구하고 유럽에 있는 이들 양측 교회의 구성원들 간에 선교 사역을 조정하게 됩니다.

2022년 아메르스포르트 (Amersfoort)에서 협의회는 새로운 구성원이 임명되었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 5. 세계 성공회 일치 신앙 직제 위원회(IASCUFO)

세계 성공회 일치 신앙 직제 위원회 (IASCUFO)는 성공회 내부 및 에큐메니컬 대화의 열매들을 수확하고, 상호 대화하는 독특한 포럼입니다.

본 위원회는 과거 세계 성공회 신학 및 교리 위원회 (IATDC), 에큐메니컬 관계를 위한 세계 성공회 상임위원회 (IASCER) 및 원저 컨티뉴에이션 그룹 (WCG)이 수행했던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세계 성공회 상임위원회는 2008년 11월에 IASCUFO를 설립했으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 세계 성공회 교회들 사이의, 그리고 성공회 교회들과 다른 교회들 및 기독교 오이쿠메네의 전통들 간 친교의 심화를 촉진하는 일;
- 에큐메니컬 참여에 관한 모든 문제, 국가 및 지역적 또는 국제적 에큐메니컬 협정 또는 협력과 일치를 향한 계획에 대한 제안, 성공회의 신앙과 직제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 세계 성공회의 관구 및 대표 기구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는 일;

- 세계 성공회의 업무와 에큐메니컬 참여에서의 공동의 이해와 일관성 및 융합을 증진시키려는 목적 하에 세계 성공회와 에큐메니컬 파트너들 사이의 신앙, 직제 또는 일치 등의 분야에서의 발전을 검토하고, 세계 성공회 교회들 또는 산하의 대표 기구들에게 그와 관련된 조언을 제공하는 일;
- 어느 관구든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치, 신앙 및 직제 등의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제안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지원하는 일.

IASCUF0는 세계 성공회 내의 삶을 성찰하기 위해 매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위원회는 에큐메니컬 관계에 대하여 세계 성공회 산하 대표 기구들 및 관구 교회들에게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ASCUF0는 신앙과 직제 관련 연구 논문 시리즈의 3호와 4호를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God So Loved the World](#))”란 제목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연구 논문 3호,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시니: 인류에게 주어진 신성한 선물과 부르심([Created in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The Divine Gift and Call to Humanity](#))”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질문들에 대해 성찰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신학적 인류학 발전을 도모합니다. 연구 논문 4호, “하느님의 주권과 우리의 구원([God's Sovereignty and Our Salvation](#))”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하느님의 은혜와 택정함의 신비에 대한 질문을 또 다시 새롭게 제시하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한 성공회적인 사고를 자극합니다.

- ACC-18에서는 이처럼 발간된 서적들을 세계 성공회 교회들에 추천하는 결의에 대해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IASCUF0는 2008년 Lambeth Conference 이후 세계 성공회 내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신앙 및 직제 관련 글들을 모아 개요서를 작성했습니다. “[세계 성공회: 일치, 신앙 및 직제, 2008-2022 \(Anglican Communion: Unity, Faith & Order, 2008 to 2022\)](#)”는 인쇄된 책이 아니라 하이퍼링크가 있는 전자 텍스트입니다. 최근까지의 포괄적인 이야기들을 쉽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ACC-18에서는 이처럼 발간된 서적들을 세계 성공회 교회들에 추천하는 결의에 대해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ASCUF0는 ‘Good Differentiation(선한 다름)’(가제)라는 제목의 세계 성공회를 직접 섬기는 신앙과 직제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성공회 신자들에게 친교란 무엇인가? 우리의 공통의 신앙과 직제에 대하여 여전히 말할 수 있는가? 또한 우리의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고 우리의 적절한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들이 서로 친교를 이루도록 부름 받았다고 가정할 때,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으며,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걷고자 한다면, 양심이 요구할 때 차별화를 위한 서로의 요구도 존중할 수 있을 것인가?

- ACC-18에서는 하나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요체로서 세계 성공회의 구조 및 의사 결정에 대해 IASCUF0가 탐구한 과정을 받아들이는 결의에 대해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 세계 성공회 전례 협의회 (IALC) ACC-18 총회 보고서

세계 성공회 전례 협의회 (IALC)는 세계 성공회의 전례를 위한 공식 네트워크입니다. 본 협의회는 존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회의 사명에 필수적인 전례와 기도를 갱신함으로써 세계 성공회 교회들 사이의 상통의 심화를 촉진하는 것;
- 전례와 공동기도문에 관한 문제에 관해 관구와 성공회 산하 대표 기구들에 조언을 제공하고, 성공회 전례에 관한 신학과 실행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관구 간의 대화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 세계 성공회 내부적으로, 또한 에큐메니컬 참여에서의 공동의 이해와 일관성 및 융합을 증진시키려는 목적 하에 세계 성공회와 에큐메니컬 파트너들 사이의 전례 제정 및 실행 등의 분야에서의 발전을 검토하고, 세계 성공회 관구들 또는 산하의 대표 기구들에게 그와 관련된 조언을 제공하는 것;
- 어느 관구든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례 제정, 계발 및 실행 등의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제안에 대해 지원하는 것;
- 사업의 범위와 결과를 ACC에 보고하는 것.

IALC의 회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구 전례 위원회 회원일 것.
- 관구에서 추천 받은 자일 것.
- 세계 [전례학회 \(Societas Liturgica\)](#)의 성공회 회원일 것.

IALC 회원이 선출한 운영 위원회는 네트워크 사역을 감독하고 향후 협의를 계획하기 위해 Revd Neil Vigers 신부가 소집하는 정기 온라인 회의를 가집니다.

- The Revd Christine Benoit (인도양)
- The Revd Canon Cynthia Botha – 서기 (남부 아프리카)
- The Ven Dane Courtney (호주)
- The Revd Canon Keith Griffiths – 의장(2022년 8월 사임) (남부 아프리카)
- The Revd Canon Dr Simon Jones – 의장(2022년 8월부터) (잉글랜드)
- The Revd Chun-wai Lam (홍콩)
- The Revd Dr Luiz Teixeira Coelho (브라질)
- The Revd Neil Vigers (세계성공회 사무국)

## ACC-17 이후

IALC는 2021년 5월 4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세계 성공회 전체에서 63명의 회원이 등록하였으며, 이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모임이 크게 확장된 모습입니다. 3일 동안 각각 2시간의 접속 시간이 있었습니다. 개별 발표, 그룹 토의 및 본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제들에 대한 성찰이 이뤄졌습니다.

- 코비드-19 대유행 기간 동안 성공회 전례에 대한 성찰;
- 주교들의 전례 제정(2020년 홍콩에서 시작되었으며 세례 받은 모든 신자들에 대한 전례 제정으로 통합됨);

- 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른 세계 성공회 달력

협약이 끝나면 각 사업 분과별로 협의를 계속하기 위해 세 그룹이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먼저 온라인 성찬례가 제기하는 전례 및 신학적 문제에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의 작업은 주교들을 초청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도록 했던, 작년 Lambeth Conference에서의 전례 제정에 관한 IALC 세미나를 다루었습니다. 비스마르크 아보카야 (Bismark Avokaya) 주교 (남수단)가 세미나 사회를 보았으며, 닐 바이거스 (Neil Vigers) 신부 (성공회 사무국)가 IALC의 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시몬 존스 (Simon Jones) 주교 (영국)가 그 자료를 발표하고 이후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캔터베리 대성당의 개회 및 폐회 감사성찬례에서 홍콩 IALC가 초안한 감사성찬례 기도문(2020)이 사용되었습니다.

제18차 ACC 총회에서는 다음 세 가지 제목으로 알려진, 세 가지 IALC 사업과 관련된 결의안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 세례 받은 모든 신자들에 대한 전례 제정
- 가상(비대면) 성찬식과 코비드-19 대유행
- 세계 성공회 달력

#### 향후 계획

많은 관구의 성찬의식 개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성찬식에 관한 IALC 성명서 발표 후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운영 위원회는 이 전례를 재검토하기 위해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례에 관한 학문적 발전, 코로나19 대유행, 문화적 변화와 다양성, 성찬례가 거행되는 맥락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새로운 성명서는 세계 성공회 전반에 걸친 앞으로의 개정과 실행을 제안할 것입니다. 첫 번째 회의는 2023년 5월 3일과 4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4년 2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완전한 대면 방식의 협의회가 열릴 것입니다. 운영 위원회는 IALC의 보조기금을 모금하여, 관구들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몬 존스 (Simon Jones)  
 세계 성공회 전례 협의회 (IALC) 의장  
 2023년 1월

#### 세계 성공회 법률자문의원 네트워크의 2023년 ACC 총회 보고서

교회의 사명은 자체적으로 조직된 구조를 통해 수행되며, 다양한 시민법 체계가 적용되는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느 곳에서든 양질의 법률 자문이 제공될 때 모든 차원의 사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의원 네트워크는 제12차 ACC 총회의 결의에 따라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 관련된 교회법 원칙에 대한 성명서를 작성하고 또 연관된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세계 성공회 교회들에 공통된 교회법의 원칙(The Principles of Canon Law Common to the Churches of the Anglican Communion)*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중단되었으나 2022년에 만들어진 원칙에 대한 개정 작업이 법과 종교를 위한 카디프 센터 (Cardiff Centre for Law and Religion), 교회법학회 (Cardiff Centre for Law

and Religion), ACO가 참여한 공동 작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ACC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개정 과정에 대한 보고서는 아래 첨부된 바와 같습니다.

회원들께서는 개정된 [교회법 원칙 \(Principles of Canon Law\)](#)을 살펴보시길 권장합니다.

## 미래

법률자문의원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세계 성공회 관구들이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는 상황입니다. 원칙 개정 작업에서 나타난 에너지와 열정은 본 네트워크를 쇄신하고 우리가 일치하게 되는 한 측면을 축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ACC-18에 우리가 제안한 결의안은 이러한 희망을 반영하는 것이며, ACC-12와 ACC-14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기반한 것입니다.

ACC는

- 2022년의 교회법 원칙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참여하여 2022년 Lambeth Conference에 발표하도록 기여한 법과 종교를 위한 카디프 센터 (Cardiff Centre for Law and Religion), 교회법학회 (Cardiff Centre for Law and Religion) 및 모든 관련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 *세계 성공회 교회들에 공통된 교회법의 원칙 2022 (The Principles of Canon Law Common to the Churches of the Anglican Communion 2022)*를 모든 관구에서 공부할 것을 권장합니다.

ACC는

- 세계 성공회 법률자문의원 네트워크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 세계 성공회 교회들에 공통된 교회법의 원칙(The Principles of Canon Law Common to the Churches of the Anglican Communion)을 연구하도록 네트워크를 권장하고,
- 네트워크가 관련된 법적 문제들과 가능한 해결책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결과 보고서를 IASCUFO 및 ACC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중하게 제출합니다.

**The Revd Russell Dewhurst, Fellow of the Centre for Law and Religion, Cardiff University**  
(러셀 듀허스트 신부, 카디프대학교 법과 종교를 위한 센터 연구원)

**The Ven Alan T Perry, General Secretary, Anglican Church of Canada**  
(가경자 앨런 T 페리, 캐나다 성공회 사무총장)



존경하는 ACC 상임위원회 회원들께,

세계 성공회 교회들에 공통된 교회법의 원칙(*The Principles of Canon Law Common to the Churches of the Anglican Communion*)의 제2판에 관련된 사람들이 개정된 원칙의 개시 및 최초 수용과 관련하여 ACC의 상임위원회에 최신 정보를 보고하도록 합의가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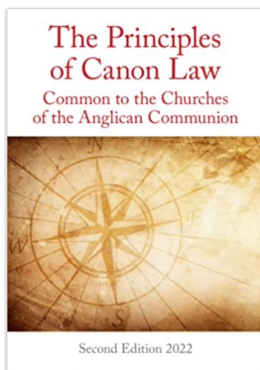
## 배경

세계 성공회의 각 교회는 자체 법률 시스템에 따라 자율적으로 움직이지만, 교회법을 연구하여 사실적으로 확립된 교회법에는 공통된 원칙이 있습니다.

2002년 캔터베리 회의에서 관구장들은 '세계 성공회 교회들에 공통되고 교회법의 공유된 원칙으로 표현된 불문법이 다섯 번째 '일치의 도구'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그 원칙의 초안 작성을 인준하였습니다. 이런 결정은 법학 교수인 노만 도에 (Norman Doe)의 연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법률자문의원들의 국제 네트워크에 의한 광범위한 연구와 작업이 있는 후, 2008년 세계 성공회 사무국은 '세계 성공회 교회들에 공통된 교회법의 원칙'(The Principles of Canon Law Common to the Churches of the Anglican Communion)을 출간하였으며, 이것은 같은 해에 열렸던 Lambeth Conference에서 최초로 배포되었습니다. 2009년 ACC는 '세계 성공회 교회들에 공통된 교회법의 원칙'(The Principles of Canon Law Common to the Churches of the Anglican Communion)을 모든 관구에서 연구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결의문 14.20).

그 이후로 *원칙(Principles)*은 여러 사례 및 학술 논평에서 인용되었으며, 자체 헌법 및 교회법을 개발하는 관구에서 사용되었으며, 특히 최근의 자신들의 간행물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Walking together on the Way*)에서 *원칙(Principles)*을 높게 평가한 성공회-로마 가톨릭 국제 위원회(ARCIC)에 의해 에큐메니컬 차원에서 채택되었습니다.

## 제2판의 제작



교회가 입법을 계속함에 따라 *원칙(Principles)*은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제2판 제작에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판의 제작은 카디프 대학교 법정대학의 법과 종교를 위한 센터와 교회법 협회 및 ACC가 함께 감독하는 공동 프로젝트였습니다. CLR은 초안 작성 및 수정 작업을 감독했으며, ELS는 초기 교정 그룹을 조직하고 필요한 후원을 제공했습니다. ACC는 저작권을 보유하고 닐 바이스(Neil Vigers)가 조정한 편집 및 조판 전문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초기 교정 그룹, 개정 위원회, 관구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계 성공회 전체적으로 70명이 넘는 교회법 법률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정보 제공에 참여한 관구들에는 Aotearoa, New Zealand, Polynesia; Australia; Burundi; Canada; Central Africa; Ceylon; England; Hong Kong; Wales; West Africa; Scotland; Southern Africa; Sudan; the USA; and the West Indies 등이 포함됩니다.



제2판은 2022년 8월 남아프리카 성공회의 비센티아 크가베 (Vicentia Kgabe) 신부, 레소토 (Lesotho) 주교가 주최한 Lambeth Conference에서 최초로 배포되었습니다. 참석한 주교들은 교구와 관구에 *원칙 (Principles)*을 적용하는 데 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서문을 써주신 캔터베리 대주교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 제2판의 최초 수용

제2판의 방법론은 2022년 10월 로마에서 열린 *성공회 및 로마 카톨릭 교회법 법률가 회의 (Colloquium of Anglican and Roman Catholic Canon Lawyers)*에서 발표된 노만 도에 (Norman Doe)와 러셀 듀허스트 (Russell Dewhurst)의 논문 주제였습니다. 그 회의 중 *원칙 (Principles)*은 성공회 팀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용됩니다. 에큐메니즘에서 점차 중요시되는 교회법적 차원이 *원칙 (Principles)*에서 잘 다루지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성공회는 일반적으로 유지되는 교회법적 기초를 지향하게 됩니다.

2022년 10월 카디프 대학교 로스쿨에서 열린 교회법 LLM 30주년 기념 학회에서 패널들은 *원칙 (Principles)*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며, 아울러 이 토론에는 크리스토퍼 힐 (Christopher Hill, ARCIC) 신부와 벤 알란 페리 (Ven Alan Perry, 캐나다 성공회 사무총장)의 논문이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학회에서 에큐메니스트 폴 구들리프 (Paul Goodliff) 박사가 이끄는 패널은 2022년 8월 카를스루에에서 열린 제11차 세계 교회 협의회(WCC) 총회에 제출된 *기독교 법의 원칙 (Principles of Christian Law)* 프로젝트에 끼친 대한 *원칙 (Principles)*의 영향력을 추적했습니다. LLM 과정 자체의 교육에서 *원칙 (Principles)*은 계속해서 세계 성공회의 더 많은 교회들에 대한 교회법 교육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2022년 8월 Wijngaards Institute for Catholic Research에서 출간하여 널리 보고된 “가톨릭 교회를 위한 헌법 제안(Proposed Constitution for the Catholic Church)”이 세계 성공회 교회들에 공통된 교회법의 원칙 (The Principles of Canon Law Common to the Churches of the Anglican Communion)을 참고하게 됩니다.

제2판의 연구 논문과 평론은 Ecclesiastical Law Journal (러셀 듀허스트, Russell Dewhurst)과 Journal of Anglican Studies(크리스토퍼 힐, Christopher Hill)에 다음 달 게재될 예정입니다. *원칙 (Principles)*을 지원하는 리소스 페이지는 Ecclesiastical Law Society 웹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작업은 2023년 1월 로마 카톨릭 교회 내에서 공동합의성(synodality)에 대한 시노드의 일환으로 로마에 있는 교황청립 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의 에큐메니컬 연구소에서 열린 "서방의 말에 귀 기울이기

(Listening to the West)" 학회에서 러셀 듀허스트 (Russell Dewhurst)가 발표한 내용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 결론

법과 종교를 위한 센터와 교회법 협회 및 ACC가 함께 참여하여 진행한 제2판 제작 프로젝트는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제2판이 발간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학계와 에큐메니컬계의 관심과 활동은 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교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세계 성공회 전체에 걸쳐 *원칙 (Principles)*에 대한 연구를 더 광범위하게 장려하기 위한 요청이나 결의안(2008년에 채택된 결의안 14.20에 해당)을 고려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Russell Dewhurst, Chair of the Principles of Canon Law Revision Committee  
(러셀 듀허스트, 교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Norman Doe, Director of the Centre for Law and Religion, Cardiff University  
(노만 도, 카디프대학교 법과 종교를 위한 센터 디렉터)

Elizabeth Wilson, Chair of the Ecclesiastical Law Society  
(엘리자베스 윌슨, 교회법학회 회장)